

건축문화 사랑

Vol.036 11. NOVEMBER 2012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News 2012. 11

036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3세돌



2012년 제1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_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뷰_ 사람 & issue

광주 / (주)건축사사무소에이디그룹 신정철 건축사



축사/시론 02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이상정,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_조용준
건축물지도점검위원회가 “건축사의 품격”을 말하다 _ 신찬균

작품소개 03

2012년 제1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_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특별기획 04-05

건축문화사랑 창간 3주년 기념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좌담회

서양건축 06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 3부 _ 김경원

사람 & issue 07

건축문화사랑 창간 3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 건축사_ 신정철

전통건축 08

전통건축문화 이야기 2부 _ 강대호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09

嘯+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 2012 광주대회는 건축사들의 파위를 보여준 대회

건축도시문화제 10

제9회 광주건축 _ 도시문화제,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2012년 건축문화사랑 3주년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창간

세돌 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건축문화사랑이
창간 3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건축문화사랑’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성과에 대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정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09년 11월에 창간한 ‘건축문화사랑’은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월간소식지로 호남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대변하며, 지역건축문화를 사랑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예향의 도시,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수천명의 건축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건축사의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외에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건축박람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광주폴리,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대표적인 건축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축문화사랑’은 이러한 행사에 대한 홍보와 건축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성장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에 이어, 최근에는 아시아 첫 중량급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유치 등으로 국가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은 경제적 소득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OECD 27개 국가 중 21위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이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그 자체가 문화이며,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인은 건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문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건축문화사랑’이 있으며, 다양하고 심도 있는 건축문화 활동으로 지역건축에서 세계 속의 건축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창간 3주년을 한 번 더 축하드리며, 해를 거듭할수록 ‘건축문화사랑’이 한국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건축문화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문화사랑 발행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조용준 회장 | 교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문화사랑은 그간 재정적 어려움 속에도 건축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인들은 이를 통하여 여러 건축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된 인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는데도 큰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그간 건축은 산업적 기능적 합리성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낡으면 언제든지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설비(scrape and build)정도로 취급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느 선진 국가 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에서 토건국가라고 비난할 정도로 질보다는 양적 성장이 강조된 개발경제의 논리속에서 건축지위는 매우 왜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건축은 도시경쟁력을 만드는 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좌표설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건축이 서구사회에서처럼 도시매력을 만드는 소중한 문화로 확고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건축인 스스로가 도시적 시각과 창조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적 합리성에서 태어난 턴키제도 등의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건축문화사랑이 이러한 일들에 더 많은 공헌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거듭 건축문화사랑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지도점검위원회가 “건축사의 품격”을 말하다



신찬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우창
wcarc0406@hanmail.net

국가로부터 건축사의 자격취득과 면허를 부여 받은 것은 개인의 영욕보다는, 격(格)에 맞는 업무수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보상받음과 격(格)에 맞는 사회봉사활동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다시 되새겨 본다. 산업화과정에서 건축사의 품격과 인지도는 궁지와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다들지 못하고 성장경제이라는 현실에 안주해 버렸다. 그러는 동안 성장에 정점에 다다르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외부로부터는 업무범위를 침해당하고 있고, 내부 일각에서는 업무범위를 왜곡하거나 도덕성을 망각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그 결과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건축사의 품격을 훼손하거나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경우도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관행과 과거를 청산하고 품격(品格)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와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단합된 공생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다듬질하고, 이를 주도할 전문화된 인적자원의 양성과 조직의 재편이 절실함을 제안한다.

준공건축물 위법행위 조사의 아픔을 경험하며...

2010년도 검경(檢警)의 준공건축물 위법행위 일제점검조사에 광주건축사회의 일부회원이 연루되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바 있다. 원인제공자가 건축주 또는 시공자일지라도 연루된 건축사에게는 엄격한 조치가 내려졌다.

건축물의 감리와 사용승인뿐만 아니라 준공 후의 위법행위까지도 건축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인으로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아픔은 무사안일의 업무태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 및 인정에 집착한 포용 등만이 건축사의 덕목이 아님을 상기시켜주었고, 공정성과 합리성이 융합된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또한 건축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목표와 정책, 리더와 조직, 개혁과 실행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추락된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신장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2012년 총회의 인준을 거쳐 건축물지도점검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며, 자체정화활동의 체계화와 업무영역의 건실화 및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근절 등을 목표로 한다.

발족을 준비하는 과정 및 운영 초기에는 위원회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몇몇 회원들이 기득권에 대한 위협 또는 업무활동에 대한 규제라고 오해하여 루머가 나돌았고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회원의 지지와 광주건축사회의 의지로 건축물지도점검위원회는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2012년 3월 5일부터 시작된 위원회의 활동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최상의 팀워크를 위하여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적 합의에 반하는 위원은 사직권고와 자진사임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위원들이 공(公)과 사(私)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공정성과 대(大)를 위하여 소(小)가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각종 건축행위와 인허가사항 및 관련법의 적용에 대한 조정역할과 지도활동 등을 펼친지도 어느덧 8개월.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어가고 있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하면 잠시도 나태한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다.

위원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위원회가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크지 않지만, 위원회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위원회 출범 이후에 광주건축사회와 건축사시험에 30여명 이상의 정회원이 증원 되었다는 것이다.

성과에 비해 다음 몇 가지 사례들만 보아도 위원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막중하다.

과제 하나, 임의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후 이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에 따라 건축사의 능력을 평가함으로서 건축사를 폄하하고 모독하는 일부 건축주와 건축업자. 그리고 그들에게 예속되어 굴욕스런 수임을 마다하지 않은 건축사.

과제 둘, 광주지역 수주량의 약30~40%를 점하고 있는 광주건축사회 비회원 또는 인접지역 건축사들의 불공정행위와 부도덕성.

과제 셋, 위법건축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덤핑수주, 면허대여, 분소설치, 유사영업 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거나 심지어 역량인양 과시하는 검은 그림자.

과제 넷,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검사조서를 사실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감리비와 업무대가를 축소시키는 김으로서 공동의 복지기금을 적게 납부하는 암채행위.

과제 다섯, 과도한 참여제한과 밀약 등으로 특정발주처 또는 특정 용도에 대한 독과점 형태의 수주행위.

과제 여섯,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현장과 상이하게 설계도서가 사전에 조작되어지고 행위. 등등등.

건축물지도점검위원회는 위와 같은 불공정 및 부도덕한 현상과 행위를 타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광주건축사회를 중심으로 추락된 건축사의 위상을 회복하고 권익을 수호하고자 한다.

특히, 품격유지와 공생의 전략을 갖춘 교육프로그램 마련,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와 공정한 시스템 구축,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과 엄격한 이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건강한 새 살이 돋아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무한신뢰를 확보하여 미래에 대한 건축사들의 비전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불합리한 사례의 수집과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에 대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호소하며, 아울러 홍보와 소통으로 시행착오와 업무처리고충 등이 하루빨리 최소화되고, 업무영역과 권익의 신장에 촉매제가 되어 모든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기를 소망하여 본다. ☐

2012년 3월 5일부터 시작된 위원회의 활동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최상의 팀워크를 위하여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적 합의에 반하는 위원은 사직권고와 자진사임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위원들이 공(公)과 사(私)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공정성과 대(大)를 위하여 소(小)가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문 중-

2012년 제1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 상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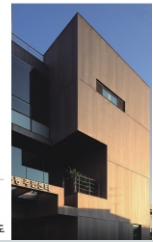
건축사 신영은 / 건축사사무소 사람

작 품 명 :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12-1번지 외필지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센터)
건 축 주 : 광주광역시 남구청
설 계 : 건축사사무소 사람
시 공 : (주)이오스종합건설

낮은 주택들이 웅기증기 군집을 이루고 있는 주택단지... 그 주택들 사이에 주민자치센터가 자리하게 되었다.
월산5동 주민센터는 단독주택 주거지에 위치하면서 매우 협소한 땅이 주어진 까닭에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사회적 건축물로서의 책무가 필요했다.
416㎡의 작은 부지에 245㎡의 건축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1층에 민원실과 33㎡의 작은 도서관을 두고 2층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소회의실, 3층에 동대본부와 중회의실 그리고 창고를 두어야하는... 기능의 과다와 땅의 한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계획은 설계자에게 상당한 수고를 안겨주었다. 8,400여 주민이 아가자기 모여 있는 월산5동 주민센터의 주요 테마는 짝을 이루는 것이다.
민원실과 썸지공원, 작은 도서관과 민원실, 로비, 썸지공간이 짝을 이루고, 프로그램실과 발코니, 로비, 소회의실이, 서로 짝을 이루며 어우러짐을 목적으로 하였다. 작은 땅이지만 작은 녹지공간과 작은 발코니 등을 두어 실(room)로서만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공(空)으로서 사이(間)를 주고자 하였다.
외관디자인은 주변 주택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징크패널과 송판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드러나지 않는 은근함을 주었으며, 심플한 선과 굵직한 매스로서 건축물을 표현하였다. 외관디자인 역시 컨셉은 짝의 이름이다. 송판노출과 징크패널의 드러남, 그 사이엔 투명유리와 공간만이 자리한다. 매스와 매스의 짝 이름, 선과 선의 만남, 재료와 재료의 맞닿음은 함께 어우러져 공간을 이룬다.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건축사사무소 선명

건축사 강 석 훈

광주 광산구 쌍암동 658-6번지
T.062)972-8159 F.062)973-8159

간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곽 영 경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53번길 38-6
T.062)515-1111 F.062)515-2210

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기 탁

광주 서구 농성2동 671-63번지
T.062)351-6002 F.062)351-6003

태영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명 수

광주 서구 풍암동 1189번지 2층
T.062)654-8534 F.062)654-8536

일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선 영

광주 남구 월산4동 965-1
T.062)367-7151 F.062)367-7153

건축사사무소 룰

건축사 김 승 룰

광주 북구 무등로 255(1층)
T.062)528-6292 F.062)528-6293

건축사사무소 한울

건축사 박 강 민

북구 임병울대로1042번길 49(신용동)자이프라자 301호
T.062)654-1814 F.062)654-1815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안길전, 최보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211-10 코밀빌딩 6층
T.062)233-7151 F.062)233-7153

(주)건축사사무소 누리

건축사 안 천 수

광주 광산구 임병울대로 321, 401호
T.062)961-2330 F.062)961-2335

건축사사무소 우창

건축사 신 찬 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2-10 해동빌딩3층
T.062)529-0406 F.062)529-0407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장 정 수

광주 서구 치평동 1208번지 골든빌 310호
T.062)373-3131 F.062)384-3534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건축사 정태호, 이관욱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062)512-8044 F.062)512-8041

수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조 휴 환

광주 북구 용봉동 1414-3번지
T.062)526-8661 F.062)526-8663

건축사사무소 시명

건축사 차 은 영

광주 서구 화정동 407-8 국민생활관 202호1
T.062)362-0544 F.062)351-1105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건축사 한 명 석

광주 서구 농성1동 641-5번지
T.062)352-0415 F.062)352-0416

건축문화사랑 창간 3주년 기념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좌담회

이제는 지속가능한발행을위해새로운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시점!

- 창간 3주년을 맞아 2012년 11월 2일, 발행인 및 임원, 편집위원, 학생기자들과 함께 좌담회 가져
- 오프라인 발행을 넘어 온라인 매체 이용 방안 모색, 독자들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 신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되

2012년 11월호를 맞아 창간 3주년을 맞이하는 본지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호(1호)에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이라는 기치 아래 발간되어 현재(36호) 발행까지 이르렀다. 첫 해를 맞았던 2010년도에는 외부인사를 초청해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을 들었고, 두 번째 해를 맞이한 2011년도에는 광주·전남·전북 공동발행처 대표들이 모여 내부 평가회의를 거쳤다. 올해는 창간 3주년을 맞아 총체적 부분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대표발행인과 3개 시·도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들의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창간 3주년 기념 워크숍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유쾌한 분위기속에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고 향후 본지가 추구해야할 목적과 목표까지 제시됐다.

다음은 지난 11월 2일 진행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좌담회 참석자

대표발행인 : 심상봉(광주건축사회장)

담당임원 및 이사 : 강필서(광주건축사회 부회장),

정명철(광주건축사회 이사)

편집인 : 서재형(사회자)

자문위원 : 박흥근(초대 편집인)

논설위원 : 이순미, 정영범

편집위원 : 신영은, 박신남, 강동영, 정관성,

박종호, 천경훈, 양우현

사무국 : 김재성, 선종덕

학생기자 : 강현제(순천대), 박종성(순천대),

이슬기(조선대), 탁지민(동신대),

김소륜(동신대), 두현정(전북대),

김소라(전북대)

서재형 : 창간 3주년을 맞아 건축문화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먼저 초대 편집인과 담당임원 및 이사님의 총체적인 평가, 보완점 등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 ‘재정 및 인력 관리의 시스템화’, ‘발행구조변화’, ‘다양한 독자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박흥근 : 우선 이를 논의하는 것은 향후 건축문화사랑이 발전되기 위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은 찾아내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대 편집인을 역임하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이라 봅니다. 또한 인력적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실 겁니다. 대부분 편집위원들은 건축사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신문에 집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시피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필서 : 저 또한 ‘지속가능한 신문이 어떤 것이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신문발행에 약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문 발행은 인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뉴스위크 잡지가 조만간 종이 인쇄를 포기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어 가며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정보전달이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지 건축문화사랑 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펼쳐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건축물투어나 건축설계경기 같은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부분 또한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정 독자층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비평과 같은 코너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정명철 : 신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독자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신문이 어떤 대상들을 위해, 어떤 내용을 실어 그 대상들을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 신문에서는 대부분 4~5년 대학교나 설계경기 당선작 등 소위 잘나가는 곳에 대한 뉴스전달이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서 조금만 벗어나 전문대라는지 설계경기에서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를 전달하다보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의 기득권 정보가 아닌 90% 소외층을 위한 정보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재형 : 지속가능 한 발행을 위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 세 분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전공 학생들을 위한 코너’, ‘건축비평 코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방안’ 제안

천경훈 : 새로운 아이템 꺼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설계경기나 작품소개 같은 경우 대부분 완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좌담회에 앞서 신영은 편집위원께서 설계하신 건축작품을 돌아 보았는데, 설계하면서 스케치한 과정이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함께 게재가 된다면 독자들의 입장에서 더 친근하게 읽힐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신남 : 이제는 우리 신문이 건축후배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본지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건축사아카데미라든지, 건축학도들을 위한 공모전 개최 또는 홍보를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미 : 매년 광주건축사회 주최로 건축사들을 위해 건축사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학도들의 참여를 위한 교과목이 개설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통해 홍보가 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봅니다.

「2012 전남 건축인의 밤」 개최

— 일 시 : 2012. 11. 29(목) 16:00 ~ 20:00

— 장 소 : 전남 여수시 신월동 히든베이 관광호텔 연회장

— 참석예정자 : 200여명

- ▶ 전남 건축사 회원
- ▶ 외부인사
- ▶ 전남도·시·군 건축관계 공무원

— 세부일정

- ▶ 초청강연
- ▶ 전남도내 대학생 장학금 수여
- ▶ 전남 건축인의 밤 만찬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 ‘재정 및 인력 관리의 시스템화’, ‘발행구조변화’, ‘다양한 독자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건축전공 학생들을 위한 코너’, ‘건축비평 코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방안’ 제안



정영법 : 저희 신문이 현재 전문가 위주로 배포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한 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결국 그 도시를 완성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치로 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일반인들을 위한 배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재형 : 편집인으로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배포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발행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먼저 우리 신문과 광주지역 유명 무가지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무가지의 지면을 할당받아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게재하는 방안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필진 수준이 한층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명철 : 편집인과 약간 반대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만의 신문 색깔이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의 색깔을 더 분명히 하되 건축인들과 그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독자층을 넓혀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필서 : 대중성과 독자층 확보를 위해 학생기자들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전자파일(PDF)로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 발행이 되면 각 대학 학생기자들이 소속 과의 학생 전원에게 이메일 전송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순미 : 서재형 편집인께서 말씀하신 광주지역 무가지를 활용한 홍보에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무가지에 본지 명의로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을 게재하는 방안은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작은 부분들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며, 대중들에게 인식된다면 건축문화사랑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동영 : 우리 신문에 건축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인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월 건축사나 교수들을 인터뷰하고 있지만 실제 듣고 느끼는 대상은 취재를 가는 사람들로 제한적입니다. 신문 주치로 분기나 반기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철학이나 살아온 과정들을 듣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본지는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순미 : 조금 전에 강필서 부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신문도 비평적인 부분이 게재되어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건축계의 현안들을 직접 찾아내고, 그에 대한 잘잘못을 구분하는 코너들이 마련된다면, 우리 신문만의 색깔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영은 : 발전적인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역시 계획보다는 실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차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제안할 부분은 편집인과 편집위원들이 신문 발행에 있어 무료봉사하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편집위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차차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성 : 본 신문도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도 돈을 받고 발행하는 신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과 그에 맞게 신문발행의 질도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상봉 :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발행인인 저의 생각은 ‘일단 목표를 세우고 예산은 나중에 만든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선 뭔가 커다란 목표를 세우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문이 우리 목적에 맞춰 목표를 세웠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건축문화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재형 :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며 좌담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의견 중에서 우리 편집위원들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건축문화사랑 매체의 편집장으로서 초대 박홍근 편집장께서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위해 헌신하셨듯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문화사랑 ‘학생기자’ 들이 바란다

이슬기 : 신문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각 시·도 건축사회에서도 노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현정 : 회원탐방 같은 인터뷰를 동참하다보면 많은 선배 건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져 선배 건축사님들과 앞으로 건축계에 입문할 후배들이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강현제 :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신문을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각 대학의 관련 학과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게시판에 게시된다는지 하는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라 : 젊은 사람들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도 구독이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정세영 : 건축사님들의 설계 스토리텔링과 책이나 다른 여타 잡지에서 찾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성 :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딱딱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상식 퍼즐퀴즈라든지 하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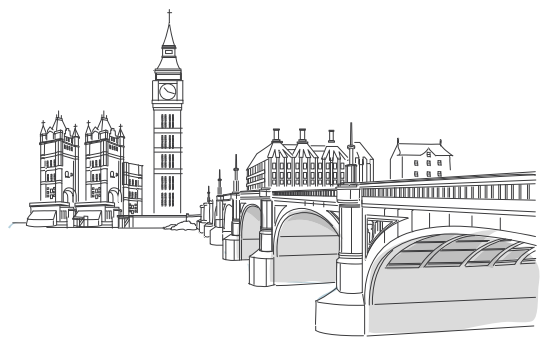
탁지민 : 건축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구인구인 코너나, 해외유학 프로그램 소개 코너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의 건축교육에 대한 현실들을 지적해주는 내용도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김소륜 : 독자 확보를 위해 일반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런던의 경우는 수세기를 걸쳐면서 그 도시안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며 건물, 거리 그리고 공공장소가 채워지면서 현재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우 얼마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광주 건축·도시문화제를 통해 건축인과 시민들이 가지는 보다 나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소통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의 도시가 과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더 나은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 도시를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도시 계획 개발에 참여하는 몇몇 관계자뿐만 아닌 모두가 좀 더 뚜렷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문 중



이미지1: NLA 전시회장



이미지2: 전시장내의 모형(스퀘어마일과 그 주변)

서양건축 :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_3부

» 미래의 런던



김경원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kyongwon@Chosun.ac.kr

1부 : John Nash(1752-1835)의 런던 - 2012년 9월
2부 : 현대의 런던 건축물 - 2012년 10월
3부 : 미래의 런던 - 2012년 11월

선진 서양건축문화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양건축'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2012년 9월호부터 2012년 11월호까지 영국 런던에서 수학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경원 교수가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를 주제로 연재한다.

지난 두 달에 걸쳐 과거 런던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 런던의 독창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 도시만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 글을 써 보았다.

미래 런던의 모습에 대해...

이번 달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 지금 런던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미래 런던의 모습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 한다. 지난달에 언급했듯 과거의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아도 앞날을 예측하며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런던의 경우 도시가 가지는 이미지를 이어가고 또한 도시라는 큰 캔버스를 채울 그림을 끊임없이 변형하고 채워가며 또한 창조하려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알아보려한다.

런던도시계획에는 많은 관련기관들이 연루 되고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NLA (New London Architecture)가 있다. 이는 독립적인 단체로서 런던에서 일어나는 건축, 계획, 발전, 재개발 및 건설에 관한 모든 이슈들에 대해 개발 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여러 전시회들을 주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런던시민 뿐만 아니라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까지 런던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건축적인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소개 및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올해 초에 NLA가 주관한 전시회를 가서 미래의 런던시의 모형을 살펴보았다.(이미지 1)

런던의 미래 발전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퀘어 마일 (the Square Mile)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산업의 중심지이기도한 스퀘어 마일은 the City라고도 불리는데 그 넓이가 약 1 제곱마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지금은 4킬로미터 동쪽의 Canary Wharf가 새로운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퀘어 마일은 지난 800년 동안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성격의 거리와 공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스퀘어 마일 안의 흰색의 모형들이 앞으로 지어질 그리고 현재 계획 중 이거나 이미 허가가 된 건축물이다.(이미지 2, 2-1)

지난달에 소개되었던 노만 포스터의 30 St Mary Axe 빌딩 (Gherkin) 주위를 새로운 고층건물들이 채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Leadenhall 빌딩, the Pinnacle, 100 Bishopsgate, 20 Fenchurch Street 등의 많은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또한 계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스퀘어 마일에서는 중세시대의 거리와 전통스 타일의 건물로 그만이 가지는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다.(이미지 3)

하지만 스퀘어 마일은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그의 중요한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곳 역시 이러한 현재와 미래시장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수용하고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NLA는 현 도시를 자세히 조사하여 다음 10년 동안의 개발계획과 목표를 현재와 미래의 수요자 및 시장의 요구와 필요사항에 맞추고 발전시키며 나아가려 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정치, 기후, 그리고 금융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John Robertson Architects, Arup, Woods Bagot, Hilson Moran and Gensler들의 초대작품들의 전시를 통해서 그들이 예측하는 40년 후의 런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를 한다.(이미지4)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BRIC (Brazil, Russia, India, China) 사이에서 2050년 런던의 위치는 어디이며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라는 질문들과 대담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그리고 도시의 미래상으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지역 건축문화제를 통해 알게 된 지역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

런던의 경우는 수세기를 걸쳐면서 그 도시안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며 건물, 거리 그리고 공공장소가 채워지면서 현재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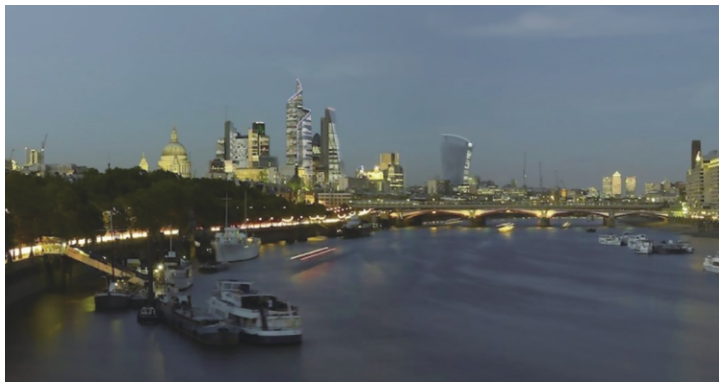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우 얼마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광주 건축·도시문화제를 통해 건축인과 시민들이 가지는 보다 나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도시 내의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며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 않고 오히려 교통이나 생활의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그리 반갑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소통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의 도시가 과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더 나은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 도시를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도시 계획 개발에 참여하는 몇몇 관계자뿐만 아닌 모두가 좀 더 뚜렷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였듯 과거의 건축물을 평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디자인한 도시가 우리의 의지대로 성공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었는지 그들 스스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서 3회에 걸쳐 런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습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다. 석 달 동안 많이 부족하고 서투른 글이었지만 그 동안의 여러 격려의 말씀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미지2-1: 스퀘어마일 그래픽 이미지
이미지출처: <http://www.lia2012.org/events/view/the-developing-city-52#buildings-media/0>



이미지3: The Pinnacle, Leadenhall Building, 100 Bishopsgate, 20 Fenchurch Street
이미지출처: <http://www.wikipedia.org/>



이미지4: The Developing City - Vision 2050, Gensler.
이미지출처: Gensler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서양건축-영국 런던의 건축문화' 원고를 연재해 주신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경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창간3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_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 건축사! **신정철** 건축사와의 만남

건축문화사랑 창간 3주년을 맞아 이번 11월호 사람&Issue(회원탐방)의 인터뷰 대상자는 특별한 인물을 선정했다. 바로 본지 건축문화사랑의 창간 발행인이자 제12대 광주건축사회장을 역임한 신정철 건축사(이하 신 건축사)이다. 신 건축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회장 임기 중에 유치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를 만나기 위해 11월 5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을 박종호 편집위원과 전담기자가 방문했다.

다음은 신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건축문화사랑이 창간 3주년을 맞이했다. 창간 발행인으로서 소감을 밝힌다면...

‘건축문화사랑 창간 3주년! 감회가 남다르다. 가슴에 묻어 두었던 오래 묵은 숙제를 회장 임기동안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동료 건축사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건축문화사랑’의 창간이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 전문 저널로 자리를 잡아가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며 건축문화와 건축사를 알리는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수고 하시는 건축문화사랑 편집에 관여하는 동료 건축사 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린다.

본 신문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앞서 언급했고, 약간의 아쉬움 점이 있다면 신문의 중추적 역할인 시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비평할 수 있는 지면적 공간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건축문화사상이 반드시 넘겨짚고 가야 할 부분이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광주건축사회장 재임 기간 중(2009년/2010년) 유치한 대회로써 감회가 남다른 것이라 생각하는데...

2012년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란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치른 금번 광주의 건축사대회는 지역대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대회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치렀으며 세련되고 절제된 행사기획으로 광주를 찾는 대한민국 건축사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모두에게 축제가 되는 준비된 대회로 건축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사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건축사 스스로 호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만들어내며 광주의 건축사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낸 최초의 대회이자, 많은 선·후배 건축사의 봉사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광주의 건축사 모두에게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치러낸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 광주건축사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큰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제 이 지면의 고정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온 길에 대해...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조선이공대학, 광주대학교를 졸업했고, 1988년 사무소를 개설하여 만 24년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다시 태어나도 건축사로 살고 싶으며, 이 직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건축공부를 시키고 있다. 건축이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건축과 사회의 현상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축문화의 사회 환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잊지 않으려 하며 오늘도 나의 건축을 그러한 연장선상에 두고 돌아본다. 1990년대 초에 문성식, 강남구 건축사님들과 의기투합해 ‘한울회’를 결성하여 전문가의 계속 교육과 세미나문화 정착, 시민사회를 향한 전문가의 참여 등을 고민했다. 나심건(나무심는 건축인)운동을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사회문제, 그리고 건축의 문제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갔던 일은 내 건축 인생의 귀중한 전환점이 되어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건축의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확립한 건축철학은?

건축은 사람을 향한 숭고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건축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매개체로 건축을 선택한 것이다. 사람을 향한 시대 정신으로 늘 자신을 깨워야 하는 일이다. 가치는 영원하지만 그 가치를 실현해 가는 일은 문화의 속도와 시대정신을 읽어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 관련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나의 우상이며 롤 모델이 된 두 분의 선생님이 있다. 우연히도 두 분 다 광주의 자랑스러운 건축인으로 선정되셨는데 은사이자 상사로 모셨던 **故 채규당** 선생님과 한 번도 가까이서 모셔본 적은 없지만 작품 전시회 때마다 마주쳤던 **故 김태만** 선생님이다.

故 채규당 선생님은 건축사의 인품과 건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늘 뜨게 해주셨고, **故 김태만** 선생님은 학생 졸업전 하나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은퇴할 시점까지 건축사로서의 역할과 연구하시는 자세를 견지하시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축사상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다.

비쁜 외중에도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다.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하자면 대한 건축사협회 위원회 활동으로 연금관리·TF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으로는 나심건(나무 심는 건축인) 대표, 광주·전남 기독교실업인회 회장, 각종 사회복지단체 운영 이사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광주대학교에 출강하며 훌륭한 건축 전공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활동 등등,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건축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왔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선·후배 동료 건축사들께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해주며 지역사회와 광주건축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들은 내 삶에서 소중한 선물이며 축복이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남은 건축의 길에서 이루고 싶은 두 가지의 꿈이 있다. 첫째는, 건축쟁이로 30년을 살아 왔으니 이제는 나를 바라봐 주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선생이랍시고 따라준 제자들, 그리고 건축을 공부하는 아들 녀석에게 ‘차랑스런 건축쟁이’로 기억 될 작품을 꼭 남기고 싶다. 둘째는, 이 시대의 중심에서 건축 전문가로 살고 있기에 건축계가 당한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며,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피폐해진 건축 환경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이 나의 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본다.

장간 3주년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신진철 건축사와의 인터뷰. 그를 인터뷰 하면서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 건축사로서의 사명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명확하게 확립된 '사람'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건축인 생 30여년을 동안 그러한 시대정신을 밑바탕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룩해왔고 앞으로도 그의 시대정신은 어떠한 위치에서든 표현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취재 : 박종호 건축사기자 k21024@chol.com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건축문화 **사조상**

창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 회장 강석후 외 회원 10명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성우 외 회원 10명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택봉 외 회원 10명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동욱 외 회원 10명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심상봉 외 회원 10명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성희 외 회원 10명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배기업 외 회원 10명
-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김봉회 외 회원 10명
-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허민구 외 회원 10명
-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 이재삼 외 회원 10명
-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최종옥 외 회원 10명
-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엽 외 회원 10명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윤문곤 외 회원 10명
-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전상훈 외 회원 10명
-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김성환 외 회원 10명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봉규 외 회원 10명

전통건축문화 이야기_ 2부



강대호 교수 / 회장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dhkang@jj.ac.kr

》전통건축의 시대적 연속성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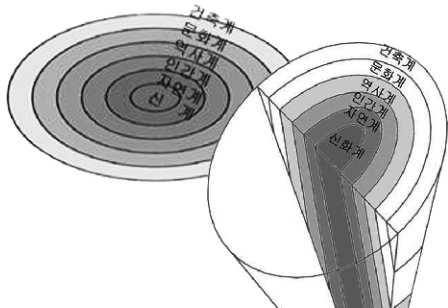
1부 : 전통건축의 현대적 수용 - 2012년 10월

2부 : 전통건축의 시대적 연속성 제안 - 2012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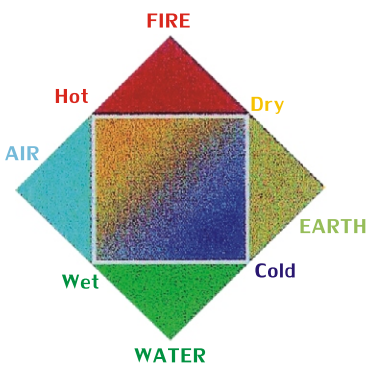
3부 : 2012년 12월 예정

전통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건축 지면을 상시 개설하고 있으며, 이번 2012년 10월호부터 2012년 12월호까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강대호 교수의 원고를 3회 연재한다.

▼그림1 건축의 통섭적 영역체계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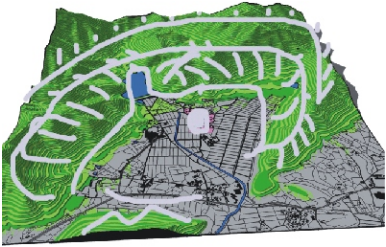
▲그림 2 건축의 통섭적 영역체계도 2



▲그림3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론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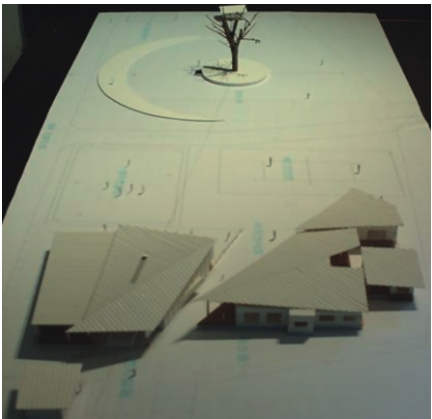


▲그림4 풍수명산도(풍수명산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론과 관계는? 전통건축의 속성의 관점에서...)



▲그림5 부안 우동권 당산마을 프로젝트 풍수분석도(금계 포란형, 필자 작성)

▼그림6 부안 우동권 당산마을 프로젝트 모형(필자 설계) -본고의 신화계와 자연계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



건축의 속성

건축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그릇, 기능, 방법의 하나이다. 건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건축 자체에 목적성을 둘 경우, 그 건축과 인간은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 건축의 기능적 속성을 생각할 때 건축은 결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고,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 작품과 회화, 조각, 그리고 작가 본인이 참여하는 행위예술까지도 포함된 모든 장르의 예술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 되었든, 작가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되었든, 작가의 사상과 작가의 의도가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된 하나의 객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작품 자체가 생명을 지니게 된다. 즉, 작품 자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볼 때 건축 역시 작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건축이 작가의 의도와 사상 등이 배인 디자인, 건축 언어와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축 자체의 개별적 생명력을 갖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체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건축은 작품과 사용자와의 관계성의 속성으로 인하여 다른 예술 장르와 구별된다.

건축가는 그 작품에 대해 의도와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작품은 완성되고 난 후 사용자의 것으로 돌려지며, 사용자의 수준으로, 기능으로 살아 나가는, 즉 작가에 대해 독립적인 별개의 객체로서 존재하게 됨을 상기해야 한다.

사용자들의 시선을 한눈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러나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결국 질리게 하는 엉뚱하고 이상한 건축이라면 그것이 작가의 실험적 의도의 결과라고 하여도, 사용자에게는 작가만을 위한 작품일 뿐이다. 건축은 잠시 감상하거나, 보거나, 만져보는 일시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물리적, 정신적으로 몸담는 사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건축에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필자의 '사고체계의 계(界)'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초인간적 실체로서의 신(神)적 요소와 공유하고 지향하는 가치체계로서의 신화 등의 '계'로부터 '자연계', '인간계', '역사계', '문화계'로 이어져 '건축계'로 귀결된다. 당 시대, 당 장소, 그리고 기타 제반요소들의 조건하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건축은 건축적 결과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계가 있고, 그 문화계 내에 역사계가, 역사계 내에 인간계가, 인간계 내에 자연계가, 자연계 내에 신화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건축은, 최초 내부의 신계는 자연계에게, 자연계는 인간계에게, 인간계는 역사계에게, 역사계는 문화계에게, 문화계는 건축계에게 각각 영향을 미친 체계의 최종결과라고 해석하는 개념이다.

특히, 오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사고체계의 계'의 개념으로 존재해온 전통건축의 경우에는 이러한 속성의 개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여겨진다. 또한 전통건축에는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온 이러한 해석체계 내의 모든 영역들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체계의 계'의 개념이 이해되고 구현되어 전통건축 자체의 속성을 규명하는 계기가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는 전통건축의 시대적 연속성의 속성 내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덜 다루어진 신화계와 자연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신화계(전통건축의 신화, 현대건축의 신화)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에 의하면, 단군신화의 기본 사상의 하나인 '홍익인간'의 이념이 우리민족의 값진 윤리도덕의 강령을 지금의 우리시대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사실로써 신화의 생명력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단군신화가 선조들의 이상을 표현하고 생활의 꿈을 엮은 아름다운 설화이기 때문에 이 신화는 수 천년을 두고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간직된 정감과 이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신화의 공유가치성을 간파하고 있다.

신화는 언제 생겨났는가? 신화는 그 시원(始原)으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타고 현재 시점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신화는 어떻게 발생되는가? 신화는 시대의 장소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신화는 왜 필요한가? 신화는 지향하는 공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신화는 가능한가? 현대의 문화는 과학과 문명에 싸여 신화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문화적인 면에서 특히 역사성과 지역성의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해, 그리고 장소성, 그리고 개별의 집단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대도 신화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신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시의 이 시대의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화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

에서 그 시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전통건축에서의 신화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과거의 신화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서 내려오고 있는 신화적 요소를 찾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대와 세대는 끊어지지 않고, 과거의 조상과 현재의 우리 세대와 앞으로 올 후손들의 세대는, 이어져 있는 시간의 흐름에서 겹쳐져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건축,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자연들은 계속 이어져 왔고,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건축적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건축에 관련된 현대적 신화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리하여 과거의 신화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대의 신화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현재의 가치관을 우리 한 몸인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였고, 우리의 후손은 미래의 우리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축의 신화를 기대한다.

자연계(전통건축의 영역: 원소론과 풍수지리)

역사적으로, 인간의 자연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원소 이론이다. 지구상에 모든 물질을 근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소라고 정의하고,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요소로서 원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소라는 개념은 일찍이 중국, 인도, 이집트, 그리스 등의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개념으로서 실험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했으나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여서 변화하여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근본재료를 원소라 하고, 그 본질은 불생, 불멸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초,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Thales, B.C. 624-546)는 근원적 물질이 하나라는 일원론(一元論)을 제시하였다. 그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며, 모든 것은 물로부터 이루어지고 다시 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그리스의 아낙시메네스(Anaximenes, B.C. 585-525)는 공기를,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of Ephesus, B.C. 540-480)는 불을, 헤시오도스(Hesiodos)는 흙을 근원 물질이라고 생각하였다. 탈레스 이후 이러한 이론들은 이원론(二元論), 사원론(四元論)등의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BC 5세기경 그리스의 엠페토클레스(Empedocles, B.C. 490-430)는 네 종류의 일원론을 통합하여 물, 공기, 불, 흙 등의 4가지를 근원 물질로 보았다.

동양에서는 엠페토클레스보다 앞서, BC 7-6세기 경, 인도의 카필라(Kapila)가 제기한 사대설(四大說)에 의하면 만물은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대 중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니 이는 서양의 사원론과 대동소이한 요소들이었다. 석가는 BC 6세기 초에 4대 중 공(空)을 추가하여 5대로 하였다. 또 중국의 오행 화(火), 목(木), 토(土), 금(金), 수(水)의 사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었다.

엠페토클레스의 사원론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에 의해서 종합되었고, 이들은 고체, 액체, 기체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량, 건, 습, 냉, 열 등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네 가지 원소가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혼합하고 미움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세계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원에 오원(五元)을 추가해서 오원 이야말로 세계를 만드는 유일한 근원재료인 '제일 물질(Quinta Essentia)'로 규정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가상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는 석가의 공(空)의 개념으로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원소론에 입각한 자연관을 살펴 볼 때 현대의 건축을 위해 매우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동서양의 공통된 요소는 水, 火, 土이며 이에 건축적으로 활용되어온 동양의 풍(주: 風, 서양의 공기에 해당), 수(水), 지(주: 地, 서양의 흙에 해당), 리(理),를 포함한다면 풍, 수, 지(주: 土와 地는 동일한 요소로 봄)와 에너지로 해석될 수 있는 화(火) 등으로 정리된다. 또한 석가의 '공(空), 풍수지리의 리(理),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5원인 '제일물질' 등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구성요소들의 '근본질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연계의 근본요소들은 풍(바람, 공기), 수, 지(흙, 땅), 자연계의 통합적 근본질서(공, 제일물질, 理), 그리고 에너지(火) 등으로 종합된다.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인텔리전트 빌딩... 등의 이 시대에 있어서도 자연은 언제나 자연 그대로 불변성을 갖고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계의 기본개념에 의한 전통건축의 현대적 적용과 적용 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본고에서 제안한 전통건축의 속성에 내포된 자연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의 개발과 실무적 접근방법의 시도를 기대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



2012 광주대회는 건축사들의 파워를 보여준 대회!

- 역대 대회 최초로 국무총리 참석, 김항식 총리 “이제는 건축 분야도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거듭나야” 강조
- 전국 5,000여명 참석, 국격을 상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건축인의 사명의식 등을 강조하는 6개 항의 비전 선언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최초로 국무총리가 참석하였고,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비롯한 강운태 광주시장, 홍문종, 강기정, 심상정, 오병운 국회의원 등 정관계 귀빈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회를 빛내주었다. 대회에서 심상봉 집행위원장은 귀빈들과 전국 5,000여 건축사들 앞에서 6개 항의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건축사들의 파워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면서 건축사위상을 드높였다.

본 지면에서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야행사부터 본대회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보고자 한다.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야행사/특별행사>



이번 대회 특별행사로 광주, 전남 건축물 투어가 진행되었는데 ①가사문학관(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가사문학관), ②무등산권(의재미술관, 우재길미술관, 전통문화관, 중심사), ③근대문화역사권(선교사택, 오웬기념각, Bell 기념관, 사직 공공예술 프로젝트), ④아시아문화전당권(아시아문화전당, 광주폴리), ⑤비엔날레코스 등 5개 코스가 마련되어 전국 건축사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별행사로 건축사 가족 합창제가 열렸으며, 약 2~3개월간의 연습과정을 거친 5개 시도(서울, 인천, 전북, 충남, 광주)건축사회원 100여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냈다. 최우수상은 아리랑을 합창한 서울건축사회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충남건축사회와 전북건축사회가, 장려상은 인천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회가 차지했다.



전야행사로 건축사대회 선포식 및 환영만찬이 진행되었고,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강성의 대회장을 비롯한 이창섭 조직위원장, 심상봉 집행위원장, 건축 관련 해외단체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강성의 대회장의 중국 ASC 명예회원증 수여식도 진행됐다.

<건축사실무교육/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본대회 행사>



본대회가 열린 10월 26일에는 본 식에 앞서 건축사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이 직접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최현 위원장의 '문화도시 도시재생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사례'라는 주제의 강연과 한양대 양덕규 교수의 '건축과 모순'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본대회가 시작되기 전 김항식 국무총리와 강운태 광주시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초청 내외빈들이 강성의 대회장과 함께 VIP실에서 입장을 대기하였고, 식당에서는 식전행사로 타악그룹 열수의 공연과 전자바이올린 Live 공연이 진행됐다.



본대회 시작을 알리는 큰북을 심상봉 집행위원장과 이창섭 조직위원장이 울리자 16개 시도 건축사회의 회장들과 회동들이 순서대로 입장했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강성의 대회장이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함께 입장을 했고, 끝으로 김항식 국무총리와 강운태 시장 등 초청 내외빈들이 리틀싸이 황민우 군과 함께 입장하며 입장식을 마무리지었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면서 강운태 시장이 직접 환영사를 했고, 김항식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이제는 건축 분야도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국회의원도 국토해양부 한만희 제1차관, 통합진보당 오병운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이번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하이라이트였던 건축비전 선언. 심상봉 집행위원장이 '국격을 상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건축인의 사명의식 등을 강조하는 6개 항의 비전'을 선언하자 참석 내외빈들이 터치버튼을 눌렀고, 그 뒤로 대형 스크린 이벤트가 진행됐다.



건축비전 선언 후 진행된 공식행사에서는 태국건축사협회 Smith Obayawat 회장과 라오스건축사 기술인협회 Phonexay Southiphong 회장, 중국건축학회 Che Shujian 회장의 명예회원 추대식이 열렸으며, 광주광역시에 빛고를 장학금 10,000,000원 기탁식도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차기 개최지가 발표되었는데 2014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경상북도 경산으로 결정됐다.

<건축사실무교육/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본대회 행사>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부 행사인 축제한마당에서 오프닝 공연으로 리틀싸이 황민우 군의 공연과 댄스공연팀인 이카루스의 공연이 진행됐다. 건축사대회 전야행사인 건축사 가족 합창대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서울팀 등의 앵콜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더불어 수많은 경품이 걸린 행운권 행사도 진행됐다. 각종 축하공연으로 김미숙 뿌리무용단 등의 공연도 진행되었으며, 특별공연으로 서울건축사회 건축사 그룹사운드 '상상밴드'의 연주와 함께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폐막했다.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기타부대행사>



기타 부대행사로 사랑의 쉼터와 편의점 등이 마련되었고, 이번 대회에 참석한 5,000여 건축사 회원들을 위해 대회당일 중식을 위한 임시 식당이 운영되기도 했다.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연계되어지난해보다관람인원증가(3만5천명/5만명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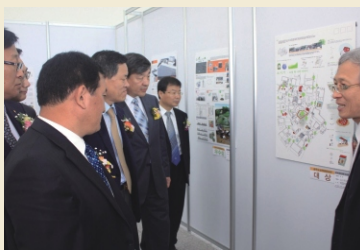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행사로 열린 건축인의 밤에서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이 제1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작품: 월산5동 주민센터) 수상자인 신영은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사람)와 오명원 대표((주)이오스 종합건설)에게 시상하고 있다.

이날 건축인의 밤 행사에는 제16회 광주건축상 시상과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시상, 건축공모전 시상, 자랑스런 건축인 추대패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에 건축학계 및 건축단체 인사들을 비롯하여,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문화제 개막을 축하했다.

왼쪽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박익수 회장, 한국농촌건축학회 최명규 회장,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 주승용 국회의원, 대한건축학회 서치호 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김지민 회장, 일본 JIA후쿠오카회 가와쓰 히로유키 회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용준 회장



▶이번 제9회 문화제에는 많은 공모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람이 공존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도모되는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된 '전국건축공모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건축 및 도시재생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국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등이 진행됐다. 사진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이 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을 위해 직접 전시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1,000여명이 공모했고, 문화제 삼일 째인 10월 27일 시상식이 개최됐다.

특히 초등학생 이상 최고상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수여되는 계획에 따라 다수의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건축체험교실에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다.

특히 건축체험교실에서는 동심 가득한 눈망울로 건축그림퍼즐 만들기에 열중한 어린이들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연계되어 개최됨에 따라 전국의 건축사들이 간접적이거나 광주의 건축문화를 겪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됐다.

그로 인해 작년 제8회 건축문화제때 3만 5천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한 것에 반해 올해는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새로운 전시 계획으로 우수 문화제라는 평가를 받은 건축도시문화제가 내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될지... 기대해볼만 하다.



제13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그리고 그곳에서 빛난 사람들

-전북건축문화상에서 3번이나대상에 선정된(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한 건축사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 등 도내 건축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지난 11월 9일 막을 내렸다.

11월 5일부터 시작되어 5일간 전북도청 대회의실과 기획전시실, 로비 등에서 개최된 이번 건축문화제는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건축 및 친환경 도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찾기 위한 목표로 진행됐다. 전라북도과 건축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건축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를 비롯해 일본건축가, 중국건축가 등의 작품 70여점 전시, 도내 건축가 및 출향건축가 작품 30여점 전시 등 수많은 볼거리가 마련됐다.

또한 도내 건축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술발표, 건축포럼, 건축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일반인들이 건축을 더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북건축문화상에서 빛난 사람들...



전라북도과 전북지역 건축단체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고자 추진한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고, 지난 5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시상했다.

먼저 사용승인 부문 대상에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한 건축사가 설계한 'NH 농협보험 변산수련원'이 선정됐고, 계획작품부문 학생부는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권혁민 학생의 작품 '공생·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다', 공학부문은 우석대학교 정유현, 유민중 학생의 공동작품인 '수산화알루미늄 부산물을 사용한 무시멘트 경화체의 강도발현 특성에 관한 연구'가 뽑혔다.

사용승인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NH농협보험 변산수련원'은 연면적 12,399㎡의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로서 도시인들에게 바다와 휴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휴양공간으로 높은 질과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차별화된 공간경험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제시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획작품부문 학생부 대상작 '공생·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다'는 익산시 영등동 일대 낙후된 공업단지 시설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 돋보이는 계획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사용승인 부문별 금상 각 1점, 계획작품부문 학생부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 특별상(건축관련 단체장) 2점 등 총 21작품이 선정됐다.

▼사용승인 부문별 시상 내용을 다음과 같다.

사용승인(총괄)			
구분	작 품 명	소 속	건축사명
대 상	NH 농협보험 변산수련원	(주)길 건축사사무소(전주)	이길한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남원 스위트 호텔	삼우종합 건축사사무소(서울)	한종률
사용승인 공공			
구분	작 품 명	소 속	건축사명
금 상	평화 도서관	우창 건축사사무소(전주)	최진호
은 상	세동 보건 진료소	바우 건축사사무소(전안)	박광성
사용승인 주거			
구분	작 품 명	소 속	건축사명
금 상	완산정당	건이 건축사사무소(전주)	장영삼
은 상	계용당	(주)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전주)	김남중
사용승인 비주거			
구분	작 품 명	소 속	건축사명
금 상	원광대학교 지원학술정보관	(주)경진건축사사무소(서울)	조창근
은 상	타인의 시선	우림 건축사사무소(전주)	오향근

2000년에 제1회 행사를 시작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올해 제13회로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3월 건축문화상 공고 이후 10월 23부터 10월 24까지 4개의 분야로(계획작품부문 학생부, 계획작품부문 일반부, 사용승인 부문, 공학부문) 응모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48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전북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 수준 높은 젊은 건축인 양성에 한몫하고 있다.

건축문화강국, 디자인 코리아!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제53회 건축작품전 개최

–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서 진행



조선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53회 건축작품전을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 9층과 11층에서 진행했다.

이번 작품전은 5년제 건축학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전과 4년제 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의 아카데미 페스티벌로 나눠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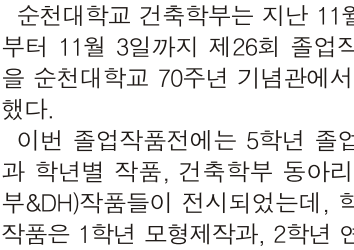
31일 오프닝에서는 조선대학교 서재홍 총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서재홍 총장은 “이 건축전을 발판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건축전문인으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소감했다.

건축학전공은 이슬기 학생의 ‘오래된 미래 한옥’, 이은호 학생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디지털 대학도서관’, 김광현 학생의 ‘스포츠를 잇는 길’ 등 5학년 17명의 졸업 작품을 비롯하여 건축공학전공은 안진훈 학생의 ‘BIM 강구조 건축물의 제진시스템 설계자동화 모듈 개발’ 등 4학년 학생 졸업 작품 50여 점을 출품했다. 초청 강연으로는 10월 31일 센구조 연구소 이창남 대표이사가 ‘안전하며 아름다운 구조’를 주제로 강연했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가 ‘한국형 아파트의 정착 및 그 미래’를 강연했다.

11월 1일에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 교수가 ‘개항 이후 도시의 재편과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 11월 2일에는 한화건설 제현기 상무가 ‘해외 플랜트분야 소개 및 건축공학도로서 플랜트분야 진로를 위한 준비 및 도전’을 각각 강연했다.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제22회 졸업작품전 개최

–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호남대학교 IT 스퀘어관에서 진행



지난 10월 25일 호남대학교 IT 스퀘어관에서는 건축학과 졸업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많은 내외빈들의 참석과 축하 속에 개최를 도왔으며, 10월 26일 폐막했다.

폐막 후에는 선배동문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선후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배들은 앞으로의 꿈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같이 고민을 해주며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웅 학생기자 khykhh@naver.com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제26회 졸업작품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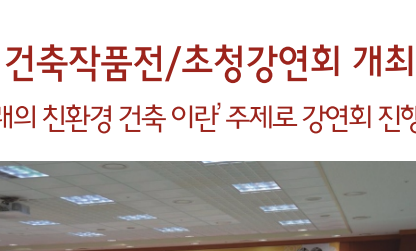
–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26회 졸업작품전을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졸업작품전에는 5학년 졸업작품과 학년별 작품, 건축학부 동아리(사진부&DH)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학년별 작품은 1학년 모형제작과, 2학년 연립주택, 3학년 전통건축, 4학년 시청사가 출품됐다.

초청 강연으로는 11월 2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건축사가 ‘집, 꿈, 숲’이란 주제를 가지고 건축은 무엇인지, 건축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 등을 하며 진행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남자영 학생기자 1128866@hanmail.net



2012 제1회 건축문화사랑 워크숍 (2012. 11. 2~3) 후기

지극히 사적인 하루의 감각

두현정 학생기자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12:00 p.m.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이 좋다. 워크숍에서 후배를 소개시켜줄 맘에 약간 들떠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약속보다 한 시간 앞서 후배와 만나 간단한 점심을 먹는다. 후배는 이미 우리 과 동아리에서 귀요미로 통한다. 씩씩한 성격에 말도 귀엽게 하고, 재치가 있다. 앞으로 학생기자 역할을 잘 해 나갈 것 같아 안심이다. 나도 모르게 짓던 엄마미소를 눈치 채지는 않았겠지...

02:45 p.m.

드디어 사람들이 시아에 들어온다. 바람이 꽤 부는지 다들 몸을 움츠리고 있다. 눈앞에 서있는 건물은 월산5동 주민센터이다. 외관을 보니 건축사님의 노고가 느껴진다. 판넬이 부착되는 입면 계획 하나하나가 섬세하다. 참 작은 규모에 오밀조밀 많은 것이 들어있다. 상하로 긴 창이 하늘을 그대로 보여줘 공간이 넓게 느껴진다. 역시 건축은 디테일이다.

04:00 p.m.

수개월 만에 다시 온 비엔날레전시관이다. ‘라운드 테이블’이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이다. 라운드 테이블은 개개인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협업은 점점을 찾아낸다.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상당히 건축적이라고 느껴진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놓은 것 같은 작품이 눈에 띈다. 각각의 조각 안에는 서로 다른 글씨체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담겨있다. 광주 전역에 흩어졌다가 다시 뭉친 조각들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의 힘이 느껴져 마치 하나의 행성처럼 보인다.

07:00 p.m.

뜨거운 열기에 얼굴이 달아오른다. 저녁식사를 비롯한 회의가 마치 비엔날레의 주제처럼 라운드 테이블들 사이에 둔 것 같다.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점점에 개개인이 연결되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간다. 모여 앉은 건축사님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모두가 한마디씩, 우리도 우리 나름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다. 용기 내어 전북에 대한 아쉬움을 말해보자.

04:00 a.m.

방이 아직도 왁자지껄 하다. 한 해가 끝나가지만 이제라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겁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웃음이 끊이지 않아 배꼽이 빠질 것 같다. 대학교 엠티에서도 해보지 못한 장난을 여기서 해본다.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정말 재미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10:00 a.m.

익숙한 시골마을이다. 후배를 닮은 달팽이가 눈에 띈다. 담양 창평 슬로시티의 상징이다. 편안한 휴먼스케일의 한옥들이 개성을 가지고 마을에 모여 있다. 어릴 적 살던 시골마을과 설핏 겹쳐 보여 눈을 깜빡인다. 논과 논 사이의 길, 담과 담 사이의 길을 걸으며 푸근한 한옥의 정취를 느껴본다. 담장을 덮은 넝쿨이 멋스러움을 더한다. 봄에 찾으면 더욱 생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찾은 곳은 담양의 관방제림이다. 2년 전 겨울에 찾은 기억이 있지만 계절이 달라서인지 오늘도 새롭게 느껴진다. 주어진 자유 시간동안 사진을 많이 찍고 싶다. 이 워크숍의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날씨가 좋아 마음까지 평온하다. ‘답사’라는 단어보다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03:20 p.m.

해산 그리고 집에 달기 두 시간 전이다. 불편하지만 버스시트에 몸을 맞춰 자세를 잡는다. 창을 통과한 햇살에 절로 눈이 감긴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본다. 곧 취업을 앞두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머릿속의 복잡한 잔가지들이 많이 쳐나간 느낌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건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다. 내가 꿈꾸는 세상에서 이리 저리 가야 할 길을 살피지만 그 역시 경로만 살짝 달리했을 뿐 종착역은 같다. 학생기자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활동에 눈뜨고 목표도 생겼는데 아쉽게도 벌써 그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다. 그렇지만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활동을 마무리 하고 나면 또 다른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을 나를 상상한다. 부정적인 마음보다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올 해가 가기 전 소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더 있기를 기대한다. 또 한 번 기분이 좋아진다.



한국주거학회 주관, '광주 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한국주거학회가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후원하는 도시재생 세미나가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광주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토해양부도시재생과 길병우 과장과 에이엔유디자인그룹 김진욱 전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이상훈 과장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광주광역시, 2012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3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진행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광주 치평동 홀리데이인 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 도래로 세계 각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와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서 각 도시의 경제력 지표를 토대로 경쟁력 지수 발표, 포럼 개최를 통해 도시경쟁력 방향 정립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광주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도시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광주시에의 시사점 중심으로 발표되며, 이수성 前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 차별 파트너스 차별랄프 대표(건축 인권 도시경쟁력/동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벤티스 코퍼레이션 시몽뷔로 대표(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화 전략), 데일리텔레그래프 앤드류 새먼 한국주제 특파원(문화도시 에딘버러와 에딘버러 페스티벌), 서강대학교 동아시아학 아르노 르보 연구교수(빛의 도시 리옹과 첨단기술)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초청연사 발표 후 학계, 예술계 등을 대표하는 5인(좌장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세원 교수, 토론 : 한국영상문화학회 김동운 회장, 국가브랜드 전문위원 오장근 교수, 전남대 유라시아연구소 류재한 소장,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이수성 前 국무총리



차별랄프 대표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광주에서 열려

— 세계비엔날레대표자회의에서는 '세계비엔날레협회'를 창설기로 합의



지난 10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는 세계 비엔날레의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비엔날레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가 개최됐다.

개막과 함께 '중심의 이동'을 주제로 중국 출신의 세계적 철학자인 왕 후이 등이 참가한 기조발제와 23개 비엔날레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9일에는 니코스 파파스테르기아디스 교수의 기조발제, 비엔날레 사례발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117년 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세계 비엔날레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비엔날레대표자회의가 열렸는데 '세계비엔날레협회'를 창설기로 합의했다.

공동주최 측인 비엔날레재단의 마리케 반 할은 "전 세계 현대미술을 리드하고 있는 광주, 아시아에서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가 시작되는 것이 의미있다"며 "세계 각국의 비엔날레를 조직하는 분들이 연대감을 느끼고 비엔날레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 정년퇴임식

— 오는 11월 24일 오후 6시 광주 무역센터 웨딩홀에서 열려/22일 오후 3시에는 교내특강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가 오는 11월 24일 오후 6시 광주 무역센터 웨딩홀에서 정년퇴임 기념식을 갖고 2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 짓는다.

남기봉 교수는 1948년 태어나 1966년 나주(한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1년 약 15년간의 독일 생활을 마친 후 귀국하여 동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로 20여년 간을 재임했다. 2010년에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인정받아 대한건축학회 교육상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정년퇴임 기념식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3시에는 교내특강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란다.



남기봉 교수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서 순청정원박람회 홍보

— 건축사대회에서 전국 건축사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최 예정인 정원박람회 홍보



전라남도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0월 25일과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2013 순천민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했다.

순천시 관계 공무원과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은 전국 건축사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개최될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며 성공개최를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제2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의 무한한 가능성 보여주며 성료

—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7만 5천여 명의 관람객 수 기록



전라남도도와 영암군이 공동주최하고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위원장 조용준/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가 약 7만 5천여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11월 1일에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는 주제가 우리의 전통주거인 한옥이라는 점, 한정된 공간이 아닌 전통한옥마을에서 다양한 형태의 한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갖고 있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옥의 맛과 멋을 느껴보려는 많은 관람객들로 박람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한옥건축주제관'은 한옥건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옥의 자연·인간 친화적인 구조와 아름다움을 동영상과 다양한 전시구조물을 통해 생동감 넘치게 소개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줬다. 또한, 일반관람객이 아닌 한옥분야 전문가와 학생들을 위한 '한옥건축포럼'과 '한옥학교' 프로그램은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교육 외에도 현장체험 위주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2012 대한건축사 등산동호회 등반대회, 광주서 개최

— 지난 11월 10일 광주 무등산서 전국 500여 건축사 등산동호회원 참가한 가운데 열려



대한건축사회 등산동호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광역시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2012년도 하반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의 500여 건축사 등산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웅 회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등 다수의 건축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봉 회장은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축구대회, 전국등반대회를 한해에 한 도시에서 개최한 도시는 광주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전국등산대회 개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등산 정기를 받은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2차 폴리 시민소통마당 개최

— 천의영 큐레이터, "시민협의체, 작가 등의 의견 종합하여 2차 폴리 후보지 결정할 것"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10월 17일, 광주 NGO센터에서 '광주 폴리 라운드테이블'을 주제로 제14차 시민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차 폴리 사업 장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통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 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남대 류재한 교수의 진행으로 천의영 광주 폴리Ⅱ 큐레이터의 2차 폴리

현황발표와 전남대 조동범 교수, 광주대 장희천 교수, 시민패널 등의 패널들이 참여했다. 천의영 큐레이터는 "2차 폴리 니콜라스 허쉬 총감독의 기획개념인 인권과 공공 공간에 대한 광주시의 인문 지리적 공간 배경에다 공공권력의 변화와 인권의 성장사 등을 토대로 기존 폴리과 보도로 연계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향후 폴리가 도시의 접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확장되고 부지의 현재 조건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전략적 협의의 지점 총 11곳을 2차 폴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차 폴리 최종 후보지 결정 방식에 대해 그는 "총감독, 큐레이터 등 기획자들의 기획의도, 폴리 관련 시민협의체들과의 협의 의견, 참여 작가의 대지선정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새 야구장, bf 최우수 등급 인증

— 전국 야구장 최초로 bf(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제) 최우수등급 인증 획득

광주광역시 지난 10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새롭게 건립중인 광주야구경기장이 장애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는 사회적 약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할 경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제도로, 매개시설 및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5개 범주에 94개 세부항목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으로 구분 인증을 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학계, 단체, 시 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bf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휠체어 석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점식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기장 출입구 근접 배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노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전층에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최우수 등급 인증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새로 건립되는 야구경기장은 총 사업비 994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22,102석 규모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구팬들에게 새 야구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건축사 예비 합격자 449명,,, 합격률 지난해보다 높아

— 3,985명 응시해 합격률 11.3%, 지난해 9.5%보다 높아져, 여성합격자도 늘어나는 추세

국토해양부는 올해 건축사자격시험에 3,985명이 응시해 449명이 합격했다고 지난 11월 8일 밝혔다. 합격률은 11.3%로 지난해(9.5%)보다 소폭 높아졌다. 합격예정자 명단은 국토부(www.mltm.go.kr)와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최고 득점자는 단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윤용배 씨(35)로 300점 만점에 총 229.5점, 평균 76.5점을 기록했으며, 최연소자는 송시영 씨(29), 최고령자는 강영식 씨(58)다. 여성 합격자도 늘어나는 추세로 전체의 21.6%인 97명으로 지난해(20.4%)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는 이들 합격 예정자에 대해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4일 국토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합격예정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 건축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이노탑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창호업체로서 고효율 및 친환경창호인 커튼월, 한옥창, 시스템창, 학교창 등 A/L 및 목재 창호를 개발하여 생산·시공하고 있으며 KS인증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및 다수의 특허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튼월/고정창 더블스킨

시스템창 / 학교창

스틸커튼월(노출/비노출)

한옥창(AL / 목재)

전북건축사회,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 가져

－이성엽 회장, “미래에 대한 비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0월 31일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방문하여 1학년, 4학년 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건축공학과 주관으로 ‘지역기업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다. 건축공학과 1학년과 4학년 학생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전북건축사회 이성엽 회장이 초청됐다. 초청강연회에 이어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성엽 회장과 이정호 부회장이 건축사협회 소개와 건축사 제도, 건축실계 분야의 미래 가능성과 건축 전공자의 진로지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건축사회에서 매년 도내 건축(공)학과를 방문해서 졸업을 앞둔 학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성엽 회장은 변경된 건축사 제도와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해 설명한 후, “학생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 자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우리의 일생은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인생을 길게 보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건축설계업계에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설계 능력을 갖춘 건축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역량도 높아 질 것이므로 건축사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 전공자들이 다양한 업역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정호 부회장은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후 타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한 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최우선 목표를 기사시험 합격에 두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취업에 대한 눈높이를 한 단계만 낮춘다면 취업난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 업계의 현황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학교를 방문해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준 전북건축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직접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News광주 건축사회 동정	News전북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명성원 건축사 / 명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품곡로 6 * 전임(전남 → 광주) - 황인광 건축사 / 타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밤실로 163-16 * 변경(소재지, 사무소명 변경) - 이창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당건축 / 광주 서구 화운로 126, 3층 - 이경행 건축사 / 아키CM 건축사사무소 → 아키씨엔 건축사사무소(주) * 부고 - 정충기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10월 15일 (월) / 부친상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김용민 건축사 / 리더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2-24 - 최미선 건축사 / MS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2-4 * 결혼 - 장우섭 건축사 / 모든 건축사사무소 → 10월 20일(토) 처녀 결혼 - 최영배 건축사 / (유)영창 건축사사무소→ 10월 21일(일) 장남 결혼 - 전형직 건축사 / 동서 건축사사무소→ 11월 03일(토) 차남 결혼 - 정석균 건축사 / 정석 건축사사무소→ 11월 24일(토) 여식 결혼 / 전주 교직원공제회관 4층 오페라홀 / 오전 11시 50분 * 부고 - 허철 건축사 / 호남 건축사사무소→ 10월 11일 (목) 빙모상 - 이상호 건축사 / 한 건축사사무소→ 10월 26일 (금) 빙부상
News전남 건축사회 동정	
* 변경(소재지 변경) - 조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조 / 전남 여수시 시청서 3길 5-9 - 손주열 건축사 / 삼보 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77	* 부고 - 박재영 건축사 / 이공 건축사사무소→ 10월 08일(월) 빙부상 - 김한열 건축사 / (주)한얼 종합건축사사무소→ 10월 09일(화) 모친상 - 김정일 건축사 / (주)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0월 18일 (목) / 모친상

광주·전남·전북지역 11월 지역 축제 안내

- ▶ 10. 09 (화) ~ 11. 25 (일)까지 Critical Point 展 – 광주 서구 코오롱스페이스K
- ▶ 10. 19 (금) ~ 13. 02. 17 (일)까지 나의 사할, 당신의 피카소 전 – 전북 완주군 전북도립미술관
- ▶ 10. 25 (목) ~ 13. 02. 10 (일)까지 재미있는 상상 엉뚱한 친구들 –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
- ▶ 10. 27 (토) ~ 11. 18 (일)까지 2012 영암왕인국화축제 –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 ▶ 11. 15 (목) ~ 11. 17 (토)까지 제6회 전북청소년영화제 – 전북 전주시 지프페고
- ▶ 11. 15 (목) ~ 11. 18 (일)까지 2012 광주국제식품전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 ▶ 11. 18 (일) 제10회 고창 고인돌 마라톤대회 – 전북 고창군 고창군공설운동장
- ▶ 11. 21 (수) ~ 11. 25 (일)까지 2012 군산세계철새축제 – 전북 군산시 금강철새조망대
- ▶ 11. 22 (목) ~ 11. 25 (일)까지 제8회 KBC 광주 임신출산악아용품전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 ▶ 11. 25 (일) 제8회 고흥 우주마라톤대회 – 전남 고흥군 녹동여객터미널 옆 신매립지
- ▶ 11. 30 (금) ~ 12. 02 (일)까지 2012 국제뷰티&의료관광박람회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전담기자
편집위원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심상봉, 윤문곤, 이상엽
서재형
곽승국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선,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박상윤, 천경훈,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간별
등록일자
인쇄·제작
광고신청

광주광역시 라00144
월간
2010-01-25
원일인쇄 T.062)228-7813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창간 3주년 건축문화사랑

올해로 창간 3주년을 맞은
건축문화사랑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문형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장 철 | 동일교역(주)

오희열 | 판컴

유진중 | 이노탑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2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 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 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각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_광주건축사회 합창단 파이팅!

박신남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유림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 중에 열리는 건축사가족 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건축사회 합창단이 결성되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합창 연습하러 광주대학교 음악홀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왠지 모를 기대감 반 설레임 반 이었다. 합창연습장에 가는 도중에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 떠올랐다.

당시 합창대회를 위해 연습했던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졌다. '아름답다 무궁화 우리의 무궁화 금수강산 삼천리 고향 피었네'. 무궁화라는 창작동요를 부를 때 존재감을 모르고 수줍음이 많아 소심했던 나의 어린소녀 시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 시절, 무더운 여름 방학 때 합창연습을 너무 많이 한 탓에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던 일도 생각났고, 운동회 때 유난히도 달리기를 못해서 6년 내내 그 혼한 공책 한 권 못 받고 끝등은 내 차지였던 기억들도 떠올라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다.

합창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꼬마김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빨간 구두 아가씨'라는 곡을 연습하는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낯선 일이어서 그런지 왠지 어색하고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오합지졸처럼 느껴졌다.

합창단 멤버가 수시로 바뀌는 진풍경 속에서 지휘자 교수님의 한숨이 함께 했고 우리 실력에 맞게 편곡을 하시느라 진땀을 흘리셨다. 합창연습 후에 대학의 낭만이 서려있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해보자는 의지가 불타는 소주 한 잔의 브라운보의 떨어지는 낙엽을 멈추게 할 정도로 힘이 넘쳤다.

니힐간의 수십 차례 연습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음식과 음질이 다듬어 지고 합창을 더 잘하고 싶은 하나 된 마음과 그 열정은 일에 빠져 내재된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동시에 머리가 맑아지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건축사가 된 이래 처음으로 동료들과 경쟁이 아닌 진정성이 갖는 따끈따끈한 유대관계가 참 좋았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다복했던 유년시절 파노라마 속에 사랑하는 동생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비록 건축사 가족 음악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성적보다 훨씬 가치있는 추억과 낭만을 얻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열정을 불태워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삶에 지치고 힘든 2012년 가을, 광주건축사회 합창단에서 행복했던 이 추억은 머릿속 USB에 저장해서 생각 날 때 마다 그 순간을 펼쳐 보면서 '빨간 구두 아가씨'를 부르고 싶다.

사랑합니다. 광주건축사회 합창단! 그리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광주건축사회 합창단과 꼬마김밥은 2012년 대미를 장식 할 추억 중 함께라서 더 좋은 추억이...

원+원이 된 듯하다.

서낭당

문창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촛불 앞에 두고 기도하는 누이를 맞습니다

누천년 되었을 느티나무 내면의 끈

오색실 묶습니다

무너기도 끝자락

온 몸 감전되어 피안 선 내가

또 다른 나 만나는 겁니다

희양산 희돌리친 물로

날 바라보는 누이 눈을 마주합니다

수백리 달려와 맞는

가은역

석탄가루 얼굴 화장한 내가 이뻐나 보지요

촛불 때문 이엿을 겁니다

여명 내리는 시간

오체투지로 엽장을 녹이려 합니다



「도시, 디자인에 눈을 뜨다」

저자 : 김 철



해년마다 4학년 2학기가 되면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마스터플랜이다. 도시구조 속의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설계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에게 좀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설계 프로젝트와는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학년 때 설계를 처음 배우는 마음으로 이번 설계에 임했다.

그러면서 접할 수 있었던 수많은 문헌들 속에 '도시, 디자인에 눈을 뜨다.'라는 책을 소개할까 한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무거운 주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문헌이었다. 지은이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며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디자인에 관해 조사, 분석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 문헌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빛 좋은 개살구마냥 겉모습 포장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나의 잘못된 편견을 흔들어 놓았다.

책속의 디자인은 사용자들을 위한 실용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말 그대로 사람을 위한 인류에 디자인이었다. 200년의 긴 역사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유럽사회의 도시 디자인을 5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적용시키려 했던 그릇된 형태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난 영향이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진 않았을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의, 식, 주의 생활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양보다는 질적인 행복의 권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식이 고양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변하고 있는 듯 허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이르지 않나 싶다. 이러한 사회를 보면 건축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인지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 멋지기도 하지만 이와 반하여 한편으로는 그에 관한 책임감 또한 적지 않아 무거운 것이라 생각된다.

책의 내용을 잠시 보자면 마지막 맺음말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나온다.

'도시'는 그 이름만으로도 메마르고 건조한 느낌입니다. 도시를 세련된 모습으로 포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

다 보니 정작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시가 시민들에게 일과를 마치기 무섭게 벗어나야 하는 굴레가 되거나,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 문장처럼 도시는 삭막하다. 하지만 도시가 삭막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 하늘높이 치솟는 콘크리트의 무더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 나름대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도시를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 벽, 자동차 등 수단에 내어 주었던 우리의 땅과 거리를 되찾아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활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시민의식이 변해야 하고 사회가 변해야 하고 나 자신 또한 분발해야 할 것이다. 비록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 적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고와 철학을 갖고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잘못된 편견을 고치고 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건축의 길을 모색하게 한 값진 않지만 그렇다고 얕은 것도 아닌 이 문헌은 별 좋은 가을날 쉬이 읽어 불법한 책이 아닐까 감히 얘기해본다.



봄에는 꿈이 솟아오른다.

60,6cm × 45,5cm Oil on canvas

잔뜩 움추렸던 대지에 바람이 들어찬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나에게도 그 바람이 들어온다.
자꾸 밖으로 내 몰아가던 그 바람은
어느덧 꿈으로 바뀌어 있다.

김주연 건축사작/주신건축사사무소(광주)



관방재림의 가을
가을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어딘론가 향하는
노부(老父)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나는 이 가을,
어디로 가고있는가 ?

촬영지: 2012.11.03 담양관방재림에서

촬영자: 박종호 건축사/유민건축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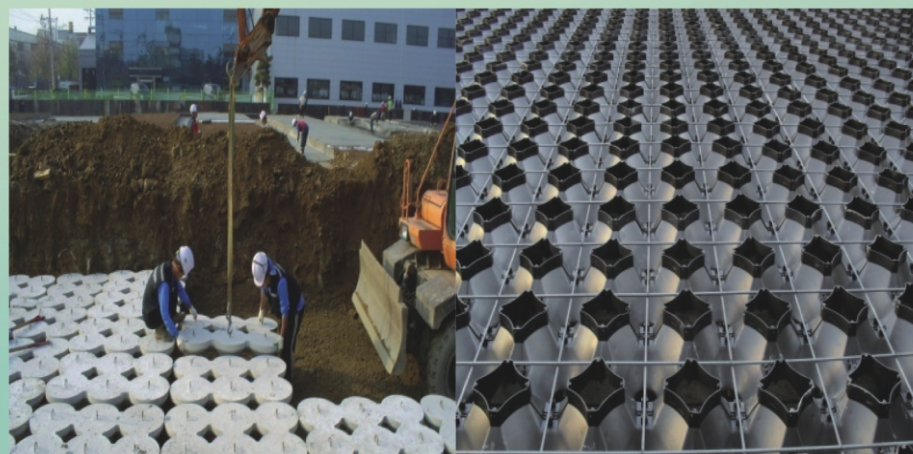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 ❑ 특징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
 -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내한 보온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원목에 가까운 질감
 - 난연재로 화재에 안전

LW PANEL 규격 : 1300 × 3050 × 6T



카이스트 내부 편칭



W호텔 내부 벽체

시공사례사진



용인요양병원



창5동 동사무소



화이트와 블랙 편칭



외국사례

주력제품 : FBD PANEL

-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의류매장 내부 인테리어



내부 천장

시공사례사진



차평동 국민건강보험



역천동 주민센터

외국사례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